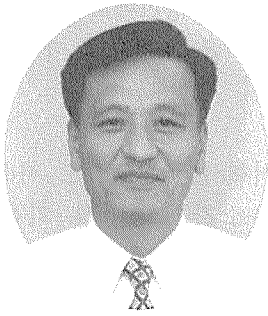


토탈에너지 서비스를 리더를 향하여



남 영 일

< LG칼텍스정유 홍보팀장 >

LG칼텍스정유는 지난해 1월 '토탈에너지 서비스 리더(The Leader in Providing Total Energy Service)'라는 새로운 기업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이는 LG칼텍스정유가 기존의 정유 및 석유화학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사업영역을 향후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예상되는 천연가스 및 전력사업은 물론 연료전지(Fuel Cell) 등 대체에너지를 포함하는 토탈에너지 서비스 분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또한 LG칼텍스정유는 인터넷사업(e-Business)을 정보화 시대에 모든 사업의 기본으로 인식하고 기존 오프-라인 사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인터넷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그 동안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주유소 편의점사업(Convenience Retailing)을 향후 수익 창출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이에 보다 많은 역량을 집중해 가고 있다.

결국 LG칼텍스정유가 추구하는 미래상은 탁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21세기에는 정유, LPG, 석유화학, 천연가스, 전력, 대체에너지 등 토탈에너지 분야에서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고객의 요구를 미리 반영하고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에너지를, 최적의 시기에, 최적의 장소로

제공하여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미래형 토탈에너지 서비스기업의 선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지들은 전사적 차원에서 진행중인 6시그마 경영혁신 활동을 추축으로 경영합리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S&P, 무디스 등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민간기업 최고의 신용등급(S&P : BBB-, 무디스 : Baa2) 획득, LG파워, 해양도시가스, 서라벌도시가스, 알개네트워크, 세티, 빅스테이션 등 신규법인 설립 및 인수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영역 확대 등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다.

1. 발전 및 도시가스사업의 확대

LG칼텍스정유는 21세기 비전을 발표한 이후 한전으로부터 안양, 부천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방 시설을 인수하여 LG파워를 설립하고, 서라벌도시가스, 해양도시가스의 인수, 경남에너지, 강남도시가스와의 지분참여를 통해 도시가스사업에도 활발히 진출하는 등 '토탈에너지서비스 리더(The Leader in Providing Total Energy Service)'를 향한 강한 의지와 실천력을 보여주고 있다.

LG파워는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한 한전의 안양, 부천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방 시설의 매각 입찰에 LG칼텍스정유가 미국의 텍사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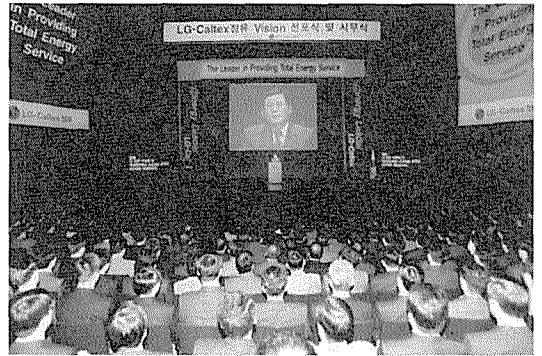
와 LG칼텍스가스, 극동도시가스 등과 콘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인수한 후 이를 운영하기 위해 콘소시엄 참여사와 합작으로 만든 발전회사이다. LG파워가 운영하는 시설은 합계 95만kW규모의 LNG 복합화력 발전소와 주변지역 17만 4천 세대에 난방열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난방설비로 수도권외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다. 현재 LG파워가 생산하는 전력은 전량 한전에 판매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전에 소요되는 연료인 천연가스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받고 있다.

LG칼텍스정유는 LG파워의 설립을 통해 향후 LNG 및 도시가스 사업과 한전의 발전자회사 민영화 등 전력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에너지원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21세기 토탈에너지서비스 리더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한편, LG칼텍스정유는 1996년 7월 국내 최초의 LNG분야 민자발전사업자로 (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로 선정되어 그 해 10월에 설립한 LG에너지를 통해서도 발전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LG에너지는 충남 당진군 아산 국가 공업단지 내 부곡공단 12만여평에 54만kW급 LNG복합화력발전소를 완공하여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들어갔다. LG칼텍스정유는 도시가스사업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 서울 중북부와 경기도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기존 자회사 극동도시가스 이외에도 지난해 8월에는 경북 경주시, 영천시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서라벌도시가스를 설립하였고, 금년 1월에는 광주광역시 전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맡고 있는 해양도시가스를 인수하였다. 또한 경남 진해, 창원, 마산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남에너지, 서울 양천구, 금천구, 구로구 일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강남도시가스와는 지분 참여를 통한 전략적 제휴를 맺음으로써 도시가스 사업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LG칼텍스정유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도시가스사업 진출은 LG에너지, LG파워 등이 가진 LNG복합화력 발전 설비들과 더불어 향후 가스공사의 민영화시

여타 업체들과 비교,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이다.



2. 연료전지 전문 벤처회사를 통한 대체에너지사업 전개

LG칼텍스정유는 정부가 국책연구과제로 선정한 G-7프로젝트 중 대체에너지 개발의 핵심인 연료전지 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2000년 12월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미국 연료전지 개발 분야의 선도업체인 DAC (Dais-Analytic Corp.) 및 국내 벤처기업 인큐베이션 전문 회사인 ABL사와 공동으로 연료전지 전문 벤처회사인 (주)세티(CETI:Clean Energy Technologies, Inc)를 설립했다.

(주)세티는 LG칼텍스정유가 보유하고 있는 50kW급 인산형 연료전지 스택 연구개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금년 4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미국 DAC사와의 상호 기술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가정 및 상가, 공공기관 등에 전기와 난방을 동시에 공급하는 연료전지 (RPG & CPG: Residential Power Generator & Commercial Power Generator)를 개발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국내 및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가정용 전자

제품을 비롯하여 노트북 및 휴대폰용 연료전지 배터리, 이동전원용(Portable) 연료전지 및 차량용(Vehicle) 연료전지로까지 그 제품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료전지는 공기중의 산소와 수소의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며, 에너지 이용 효율이 80% 이상에 이르는 고효율 에너지원이다. 또한 에너지 발생과정에서 아황산가스(SOx)나 질소화합물(NOx)과 같은 공해배출물질이 거의 없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청정에너지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연료전지가 가정이나 상가에서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은 전기료와 난방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특히 여름철 전기사용량이 폭증하는 시간대에 전원을 연료전지로 대체함으로써 전력예비율 확보를 위한 대규모 발전시설 투자비를 줄일 수 있어 국민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도 지난 80년 2차 오일쇼크 이후 대체에너지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고, 오는 2006년까지 1차 에너지 사용량 전체의 2%를 대체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주)세티의 설립은 이제까지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고 있는 국내 대체에너지 사업을 상업화 단계로 끌어올림으로써 대체에너지 시대를 앞당기려는 실질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LG칼텍스정유가 (주)세티를 통해 연료전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국가 에너지원 다원화와 기후환경변화협약 이행이라는 정책목표에 부응하는 동시에 정보 통신, 바이오와 함께 차세대 세계 산업을 이끌 첨단산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천문학적 규모의 연료전지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것이다.

3. 기존 OFF-LINE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e-Business사업전개

LG칼텍스정유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지난해 5월 국내 정유사 중 최초로 생산, 구매, 인사, 재무 등 모든 기업 경영활동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을 구축하고 e-Business사업 전개를 위한 내적 기반을 완성하였다. 또한, (주)알개네트워크(YaLGe Network), (주)넥스테이션(Nextation)의 설립을 통해 기존 오프라인 사업을 기반으로 한 e-Business분야의 새로운 사업 모델들을 실현시켜 가고 있다.

알개네트워크는 <운전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를 모토로 야후!코리아, 국민신용카드 등과 함께 2000년 11월 설립한 회사이다. 운전자를 위한 종합 포털사이트(www.yalge.com)를 구축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의 구입 및 매매에서부터 보험, 할부금융, 차량정비 및 폐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해 가고 있다.

알개네트워크는 향후 LG칼텍스정유의 전국 2,800여개의 주유소와 경정비 네트워크인 오토오아시스를 활용하여 차량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고, 무선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Mobil Contents Providing Service) 역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넥스테이션은 주유소기반의 인터넷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현대정유와 공동으로 금년 2월에 설립한 회사이다. 전국의 주유소를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물품 및 용역구입에서 경영컨설팅까지 주유소 경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주유소 종합 보탈 사이트(www.nextation.co.kr)사업과 현대택배, 한진택배, 대한통운 등 대규모 택배회사, 그리고 전자상거래 업체 등과 제휴하여 전국에 펼쳐진 주유소를 전자상거래 및 택배물류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주유소 물류 거점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넥스테이션은 이미 전국 1,200여개의 주유소를 회원으로 확보하고, 지난 2월 오픈한 주유소 종합 보탈 사이트(www.nextation.co.kr)를 통해 주유소 판촉물, 주유원의 주/부식 등 주유소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에서부터 주유기, 세차기, 유조차, 셀프청소기 등 각종 장비, 주유소 건설, 유지 보수, 환경, 안전, 보안 등과 관련된 용역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거래를 증계하고 있다.

한편, 주유소 물류거점사업의 경우 이미 대한통운, 한진, 현대택배 등과 택배업무를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했음은 물론, 최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인터넷 쇼핑몰인 바이앤조이와도 업무제휴를 맺고 6월초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4. 주유소 편의점 사업의 강화

LG칼텍스정유가 21세기 비전에 주유소편의점 사업을 전략사업의 하나로 포함하고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점점 치열해지는 시장경쟁으로 유류제품의 마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주유소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기름만 넣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주유소의 모습을 주유, 세차, 경정비 그리고 쇼핑에 이르기까지 각종 생활편의서비스

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공간 즉, “라이프 스테이션(Life Station)”으로 바꾸어 명실상부한 선진국형 주유소시대를 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LG칼텍스정유는 지난 96년 9월 국내 최초로 주유소 병설 편의점을 도입하였으며 99년 8월에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브랜드를 ‘조이마트(joyMart)’로 바꾸었다.

새로운 컨셉으로 탄생한 ‘조이마트(joyMart)’는 평균 20평 이상의 공간에 간단한 자동차용품에서부터 패스트푸드에 이르기까지 2,000여종의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상품 판매 외에도 점포의 입지에 따라 택배, 사진현상, 각종 상품권(주유, 도서, 문화) 판매, 멀티미디어단말기, 현금자동지급기, Fax, 복사기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향후에는 공공요금 수납서비스, 민원서류발급서비스와 같은 생활편의 서비스도 추가할 계획이다.

LG칼텍스정유는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미 농협과 제휴하여 질 좋은 쌀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 대한통운과 제휴하여 택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던킨도너츠, 네스카페, 하우스브란트, 서브웨이, 농심가락 등과도 전략적 제휴를 맺고 편의점 내 일부 코너를 활용하여 패스트푸드 및 식음료판매를 하고 있다.

특히 금년 4월에는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맥도널드와 전략적제휴를 맺고 완전 셀프방식의 셀프전용 주유소에 드라이브-스루(Drive-Thru)형 패스트푸드 점포를 결합한 선진국형 주유소를 국내 처음으로 개설하기도 했다.

LG칼텍스정유는 현재 전국 170여 개 주유소에 보급된 조이마트를 금년 말까지 200개로 늘리고, 곧 이어 전국 주요 도시의 점포망을 대폭 확대해 기존의 편의점과 경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본격적인 주유소 편의점 시대를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